



해양수산부

보 도 자 료

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12.23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12. 22.(목) 14:00
담당 부서	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	책임자	단 장 김상기 (064-720-2620)
		담당자	사무관 장순길 (064-720-2640)

제주항 입출항 더욱 안전해 진다!!!

- 제주단, 제주항 입구 방파제 등내에 풍향풍속계 확대(3→4개소) 설치운영 -

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(단장 김상기)은 강풍·돌풍으로 인한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풍향풍속계를 제주 내항 3개소(8월 설치)에 이어 제주 외항에도 풍향풍속계를 1개소를 12월에 추가로 설치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

* 풍향풍속계 3 → 4개소 확대, '안전해' 앱을 통해 여객선, 화물선, 예인선, 도선사 및 관계기관 등에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

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올해 9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이 운영하는 '안전해' 앱을 통해 제주 내항의 실시간 풍향풍속 등 기상정보를 여객선 선장 등 관계자들에게 제공해 왔다. 이번 제주 외항에 풍향풍속계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제주 외항을 주로 이용하는 화물선의 입출항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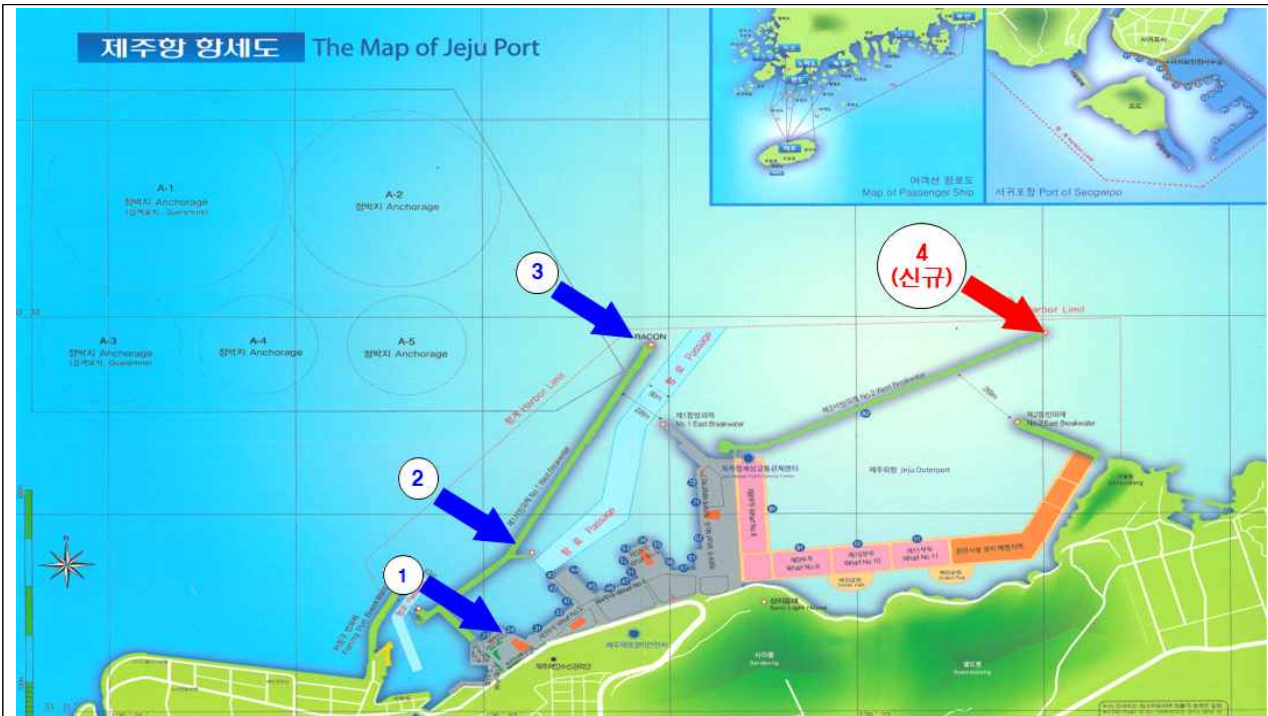
제주항을 이용하는 A 여객선의 B 선장은 "제주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풍향·풍속 기상정보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. 제주항에 입항하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제주항 입항 시 풍속의 세기에 따라 예인선을 사용할지, 몇 척을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, 예인선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연락하여 대기시킴으로써 긴급필요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제주항 입항 시 기상정보 수집에

대한 심리적 부담감소로 안전운항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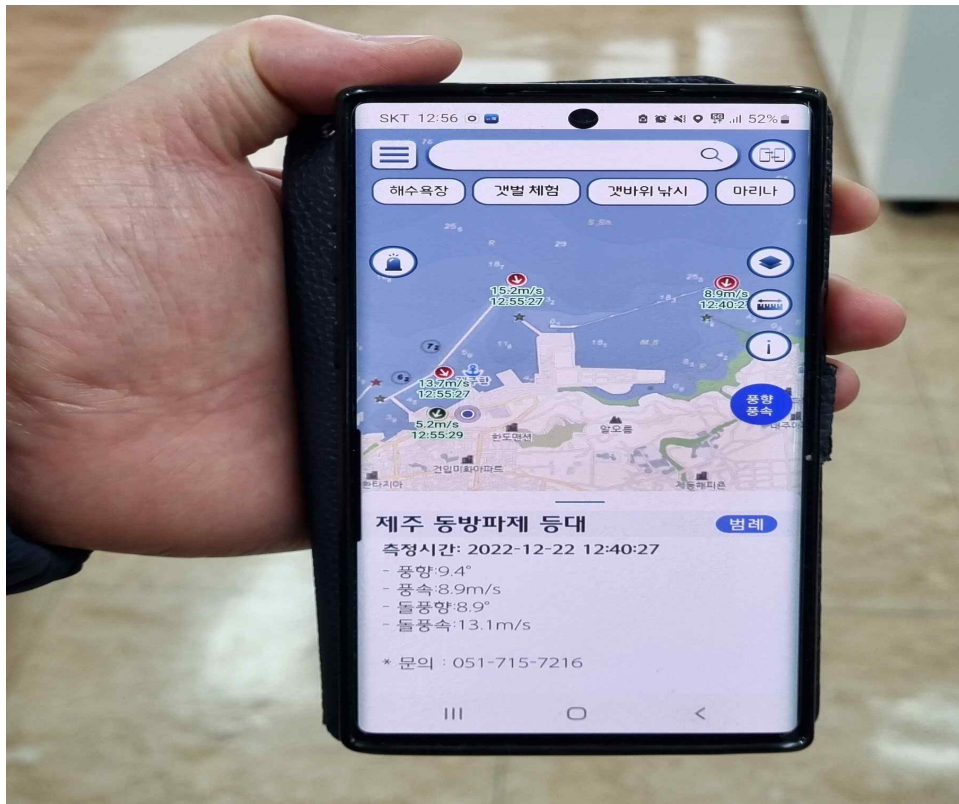
김상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“올해 9월부터 제주 내항에 풍향풍속계 설치 및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으로 여객선의 입출항이 안전해졌는데, 이번에 제주 외항에 풍향풍속계 추가설치로 화물선의 입출항도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판단된다. 제주항 현장점검 시 여객선 선장님들의 건의를 통해 발굴된 ‘풍향풍속계 설치를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’ 사례와 같이 내년에도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으로 제주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참고

관련 사진



제주항 내 풍향풍속계 위치도 : 기존 3기(파란색), 신규 1기(빨간색)



스마트폰 '안전해' 앱으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모습